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첨단 의료기기 선두업체

수질 계측기 국산화 성공

■ '나눔테크' 최무진 대표

광주 첨단산단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인 (주)나눔테크는 지난 2005년 8월 설립된 첨단 의료기기 제조 회사다. 지난해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일반 보급형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심장제세동기는 급심정지와 같은 응급한 심장 질환으로 심장박동이 멈춰 산소공급이 안될 때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전달해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의료장비다.

특히 배터리·전기가 일체형으로 개발돼 선을 연결하는 절차없이 전극을 가슴에 부착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심장제세동기 덕에 매출이 부쩍 늘었다. 27명의 직원이 지난해 내수 50억원, 수출 2만2000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008년 매출 31억원에서 20억 이상 증가한 것이다. 회사는 심장제세동기와 엑스선 골밀도 진단기, 양자치료기 개발로 5년 내에 10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눔테크의 이같은 성공에는 부설연구소인 (주)나눔테크기술연구소가 뒷받침이 됐다.

연구소에는 석·박사 전문 연구원들이 광주시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또 장성에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9일 오전 지방중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조계현 (주)나눔테크 영업이사, 김인환 (주)케이엔텍 대표이사, 임충식 광주·전남중기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눔테크는 지난해 ISO 9001·ISO 2000·ISO 13485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 안정화된 제조시스템을 확립했다. 벤처기업(2008년)과 광주시 유망중소기업(2009년)으로 선정됐다. 심장제세동기 특허(2건)와 CE 마크를 획득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 힘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최무진 사장은 "젊은 기업인 나눔테크는 응급 구조장비인 자동심장제세동기,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의료장비인 QT-master, 골밀도 진단기인 GPA-1000 등을 판매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케이엔텍' 김인환 대표

기는 물이 제대로 여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일반 물을 1차 여과시켜 경도(칼슘·마그네슘)를 제거하면 '연수'가 되는 데 이것이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케이엔텍은 수질 분석기 개발로 100억원대 국내 시장을 선도하게 됐다. 지난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목표 2배 올려 18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또 인도·중국 수출을 모색, 4만 달러의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케이엔텍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해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직원이 14명인 소규모 업체이지만 부설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포항공대·순천제일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유일의 극미량 유체공급용 펌프의 고정밀 제어기술과 온라인 수질분석기 전용 펌프 및 컨트롤러의 제조기술 등 현재 보유한 3가지 핵심기술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신제품(NEP)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2006년)·이노비즈기업(2007년)으로 선정됐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9001·CE 마크 인증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인환 대표는 "산업용 보일러나 발전소에 사용되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닌 여과된 물로 제대로 여과되지 않으면 설비가 고장이 난다"면서 "회사가 개발한 수질분석

광양에 있는 (주)케이엔텍은 온라인 수질 계측기 제조·시공 회사다. 국내 최초로 발전용 '실리카 분석기'와 '경도 분석기'를 개발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 기기의 국산화로 100억원대의 외화를 아낄 수 있게 됐다.

2003년 10월 설립된 이 회사는 줄 끝 산업을 보일러·냉각탑의 수질관리에 사용되는 온라인 수질분석 장치를 연구, 개발해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순수 물을 관할할 수 있는 온라인 수질 제어 자동분석기 개발에 성공, 전국의 발전소·제철소·산업용 보일러·냉각탑 등의 설비 장치로 보급하고 있다.

김인환 대표는 "산업용 보일러나 발전소에 사용되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닌 여과된 물로 제대로 여과되지 않으면 설비가 고장이 난다"면서 "회사가 개발한 수질분석

▲'슈퍼 가전' =주부를 겨냥한 가전으로 절약(Save), 초슬림(Ultra-thin), 프리미엄(Premium), 재미(Exciting), 휴식(Relax)을 뜻하는 영어 머리글자를 따 만든 조어.

제품 조작법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말하는 오븐'과 10인치 LCD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삼성 지펠 e-다이어리 냉장고는 워킹맘들이 쉽고 재미있게 가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전 제품이다. 워킹맘에게 존중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는 가전제품도 늘 추세다. 로봇청소기가 대표적 상품으로, 삼성과 LG는 각각 '링고'와 '로보퀵'이란 이름의 로봇청소기를 내놓고 '가사일로 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워킹맘들을 유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킹맘 겨냥 '슈퍼가전' 뜬다

(S.U.P.E.R)

'버블에코 세탁기' '말하는 오븐' 등 인기

가전제품의 주소비층인 '워킹맘(일하는 엄마)'을 겨냥한 이른바 '슈퍼(S.U.P.E.R) 가전'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29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워킹맘들의 소비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친환경과 공간효율성, 고품격 디자인 등을 강조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광주전자가 출시한 삼성하우젠 버블에코 세탁기는 파워버블 엔진을 채용, 세탁 시작 후 2분 만에 풍성한 버블을 발생시켜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세탁 시간과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제품이다.

삼성과 LG전자가 선보인 LED TV도 기존 LCD TV 대비 전력 소

비량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초슬림 제품도 워킹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경희 스타립 파워슬림 플러스'는 본체 두께가 16cm, 용진케어스 초슬림 공기청정기도 제품 두께가 19.4cm에 불과하다.

지역상공인, 光銀 인수 가능할까

1조5000억 자금 마련 관건... 대기업 참여 기대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중 하나로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이 유력한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상공인의 광주은행 인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상의는 인수의 관건인 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출연을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삼성광주전자·기아차 등 지역연고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참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중견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바닥이어서 자금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광주·전남 지역 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키로 하고 청와대와 정부 등 관련 부처에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인수작업을 본격화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의 기업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수에 나섰다.

문제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최근 "미국 금융권의 참여를 장담할 수 있는 행의 행의 수신 규모를 근거로 산출한 기업 가치가 1조6000억원 안팎"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상의는 1조5000억원 안팎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상공인, 지역연고 대기업, 출향 인사, 시·도민 주주 참여 등을 통

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간판 기업인 금호와 지역 대형 건설사 등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출연할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8000억원의 확보해 자본의 51% 이상으로 최소한 경영권이라도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은행 인수에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어 광주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8000억원 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우선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가칭)를 꾸려 광주은행의 자산에 대한 평가영역을 의뢰하고 주주구성 등에 대한 세부 논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박정욱기자 penfoot@



기아 '스포티지R' 해외복 조성

기아자동차가 28일 월드컵이 한창인 남아공에서 해외 유력 블로거들을 초청해 'Experience Kia'란 주제로 스포티지R 체험 시승회를 열고 있다. (기아차 제공)

광주·전남 中企 10월 3개월 연속 하락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10월 업황 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제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0년 7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제조업 업황전망SBHI(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97.1로 전달(97.4)보

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103.3을 기록한 이후 5월 102.0, 6월 97.4 등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업황전망 SBHI가 하락한 것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토목 등 일부 업종 비수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07.76 (-24.27)
코스닥지수	487.54 (-11.21)
금리 (국고채 3년)	3.89% (-0.06)
원·달러 환율	1,217.00원 (+15.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침·뜸·경락 **우관영** **도반**

개강인정

광주서기 **7월3일(토)** 14:00-17:00

CH중국어학원

한국어전화번호: 1544-5359
광주본선: 062)238-3518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안위 APT 단지 인접 동업지구 최신택 건물

- 지하 1층 최신택 건물
-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 가격 1억 2천만 원

문의: 011) 607-5629

장숙바다장어

장숙바다장어의 개신강!

062)383-1110